

## 제3장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분석

제3장

손희경<sup>1)</sup>

## 요 약

최근 우리 나라는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가 향후 소비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1인 가구는 주거비 비중이 높아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며, 1인 가구 특성상 이질성이 매우 크고,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가구 특히 여성 고령 가구 비중이 높아 고령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지원 정책이 요구됨

여성 1인 가구는 소비성향이 남성 1인 가구보다 높아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였으며, 1인 가구는 2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아 내수 진작을 위한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 1인 가구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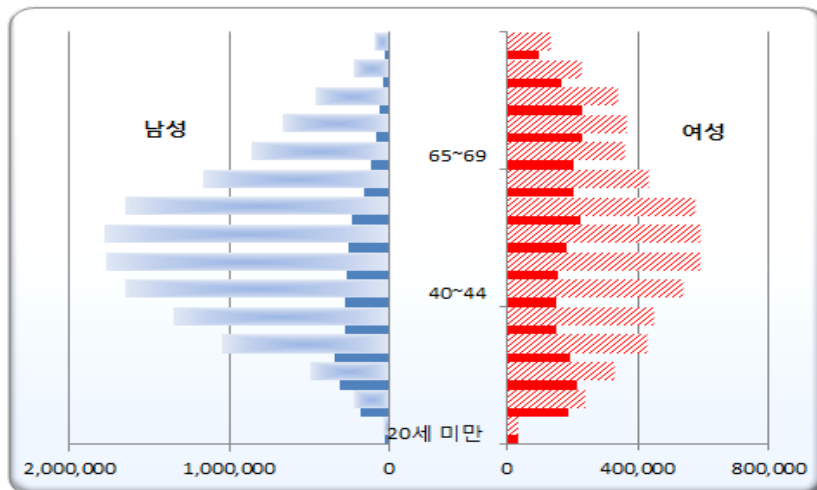
1) 금융위원회 주무관

## I.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sup>2)</su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증가추세<sup>3)</sup>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주체로 급부상한 1인 가구 증가가 향후 소비구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약화, 평균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변모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해 만혼 및 독신여성 증가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으며, 여권 신장 및 경제력을 토대로 이혼율 또한 상승
- 가구구성 형태 역시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 가구가 전통적인 가구 형태였으나, 2015년에는 1인 가구 수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1,911만 가구)의 27.2%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3-1〉 2015년 전체 가구 vs 1인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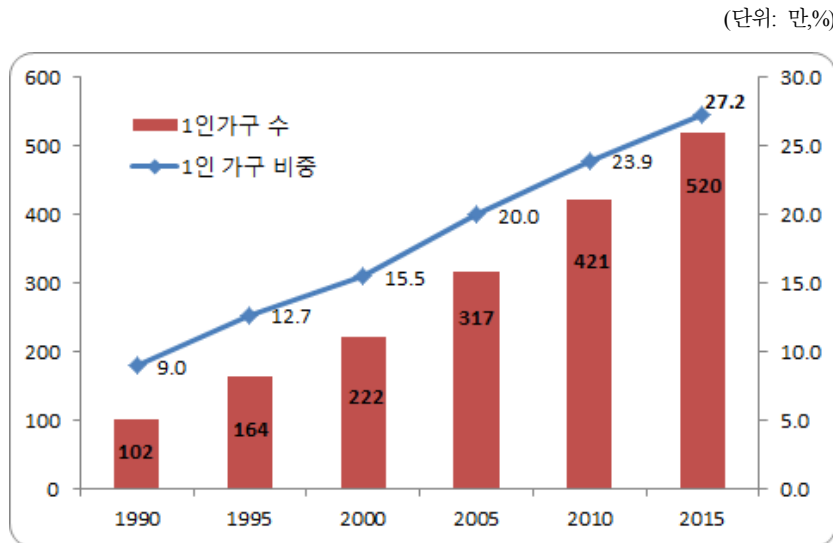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2)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개념을 차용
- 3) 통계청 『2010~2035 장래가구추계(2012)』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20년에는 29.6%, 2025년에는 31.3%, 2030년에는 32.7%, 2035년에는 34.5%가 될 것으로 전망함

-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히 가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주요 소비주체가 多人가구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1인 가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sup>4)</sup>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싱글슈머<sup>5)</sup>, 나홀로족, FOR-ME족<sup>6)</sup> 등과 같은 1인 가구 관련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화된 경제활동이 소비경제의 주요 소비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3-2〉 1인 가구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새로운 소비주체로 급부상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솔로이코노미 확산 추세에 따라,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행태<sup>7)</su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1인 가구 및 싱글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자 기업들이 1인 가구 및 싱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의미함

5) 싱글(single)인 1인 가구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용어로 1인 가구 소비자를 의미함

6) For healthy, One,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로 만들어진 신조어. 건강, 개인화, 여가, 편의성 및 고가의 소비활동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7) Lancaster(1975)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작아질수록 1인당 소비하는 재화의 양은 증가하는데,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소비 변화 중의 하나는 주택수요에 대한 변화라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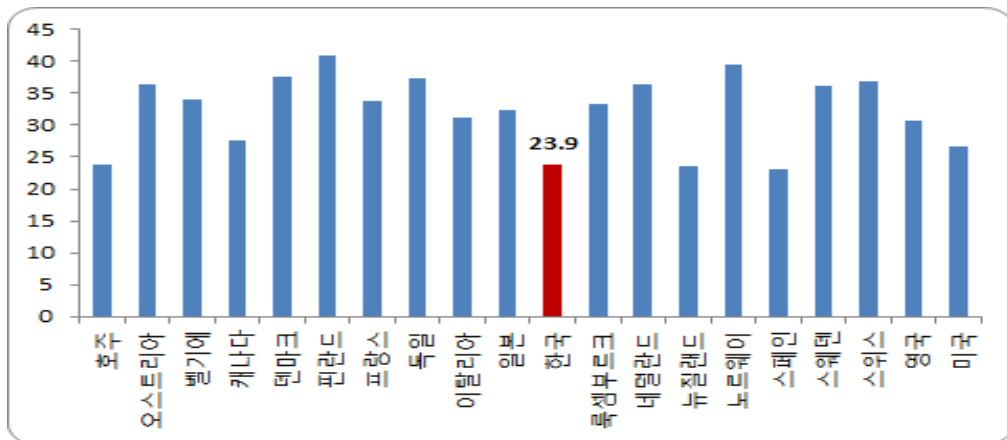
## II. Social Media Sentiment and Consumer Confidence

□ 1인 가구 증가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사회 패러다임 변화 및 고령화 진전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선진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독일 등 가구유형 중 1/3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된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일본(32.4%), 한국(23.9%)이 1인 가구 비율이 높음(OECD, 2013)
- 선진국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1인 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빨리 대응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임

〈그림 3-3〉 2011년 기준 주요 선진국들의 1인 가구 비교

(단위 : %)



주 : 한국, 일본, 미국은 2010년 기준, 뉴질랜드는 2013년 기준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의 Family size and composition

□ 1인 가구 현황

- **(1인 가구 변화 추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4인 가구 비중(27.0%)이, 2010년에는 2인 가구 비중(24.2%)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1인 가구(27.2%)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향후 급진전될 것으로 예측

〈표 3-1〉 가구원수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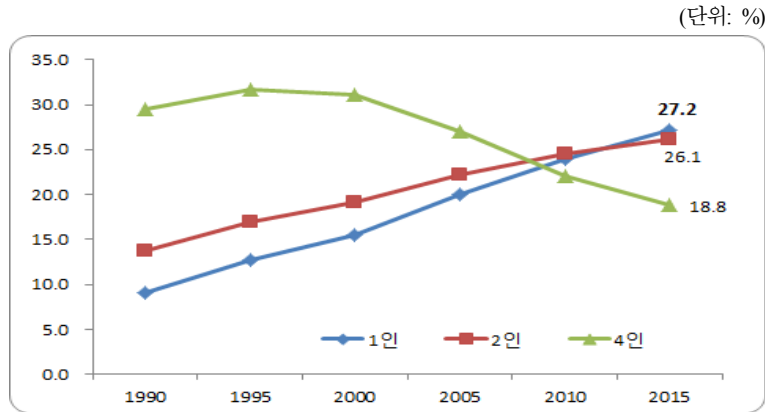
		2010 (a)	2015	2025e	2035e (b)	2010~2035 (b/a)
가 구	전체	17,359	19,111	20,937	22,261	1.28
	1인	4,153	5,203	6,561	7,628	1.84
	2인	4,202	4,994	6,523	7,579	1.80
	3인	3,699	4,101	4,321	4,318	1.17
	4인	3,905	3,589	2,767	2,190	0.56
	5인	1,080	940	596	426	0.39
	6인	241	217	132	95	0.39
	7인 이상	79	66	37	26	0.33
구 성 비	전체	100.0	100.0	100.0	100.0	
	1인	23.9	27.2	31.3	34.3	
	2인	24.2	26.1	31.2	34.0	
	3인	21.3	21.5	20.6	19.4	
	4인	22.5	18.8	13.2	9.8	
	5인	6.2	4.9	2.8	1.9	
	6인	1.4	1.1	0.6	0.4	
	7인 이상	0.5	0.3	0.2	0.1	

자료 : 통계청 『2010~2035 장래가구추계(2012)』,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2016)』

- 이는 가구 구조 변화와 함께 만혼 및 독신 인구 증가, 이혼 등 사회적 양상변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데, 특히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노년의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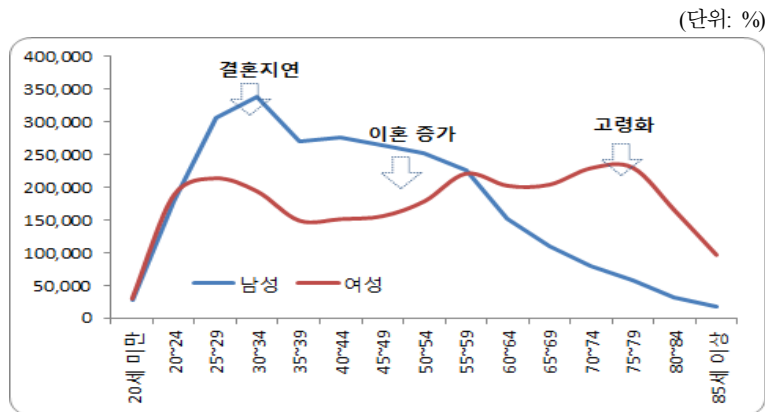


〈그림 3-4〉 가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5〉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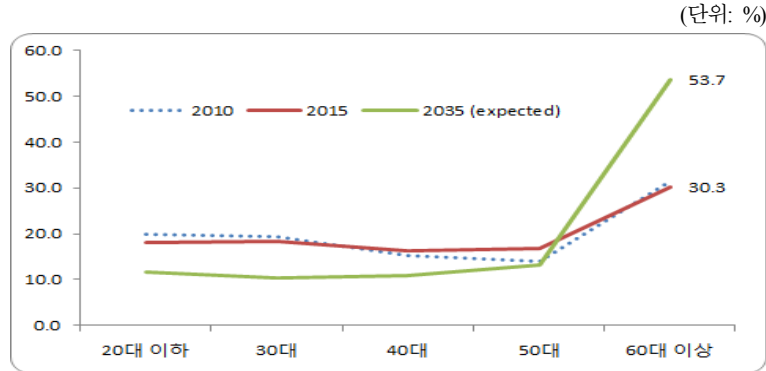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 1인 가구의 인구 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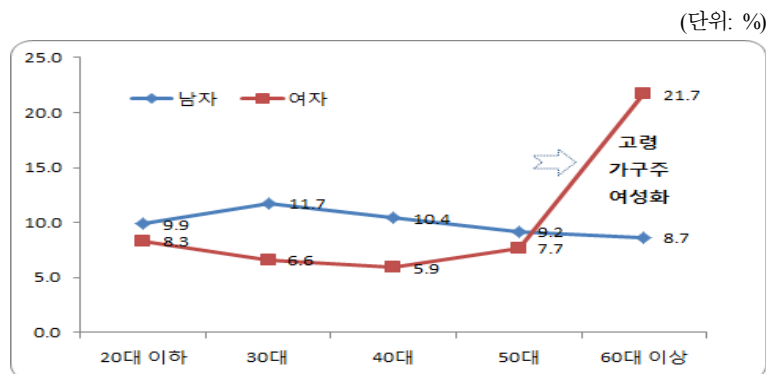
- **(연령대별)**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주로 진학과 취업으로 인한 청년기와 사별로 인한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그림 3-6〉 연령대별 1인 가구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2010~2035 장래가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7〉 1인 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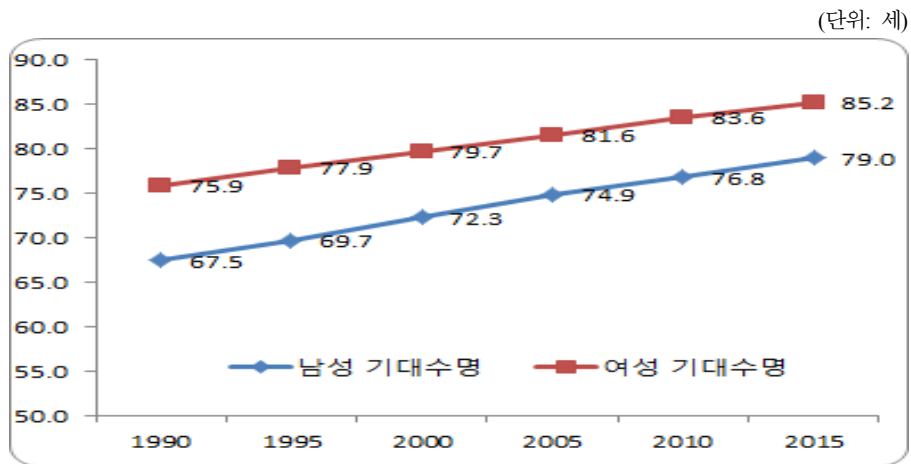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혼율 상승, 경제적 여건(직장 문제),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양상에 기인
- (성별) 1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인 20대 및 30대 남성 1인 가구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 1인 가구보다 현저히 높은 비중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 고학력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결혼 지연 또는 결혼하지 않는 독신그룹 증가에 기인함

- 또한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에 비해 약 6세 정도 높아 여성 노인이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구의 1인화와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령가구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만 가구(38.0%)로 증가할 전망

〈그림 3-8〉 기대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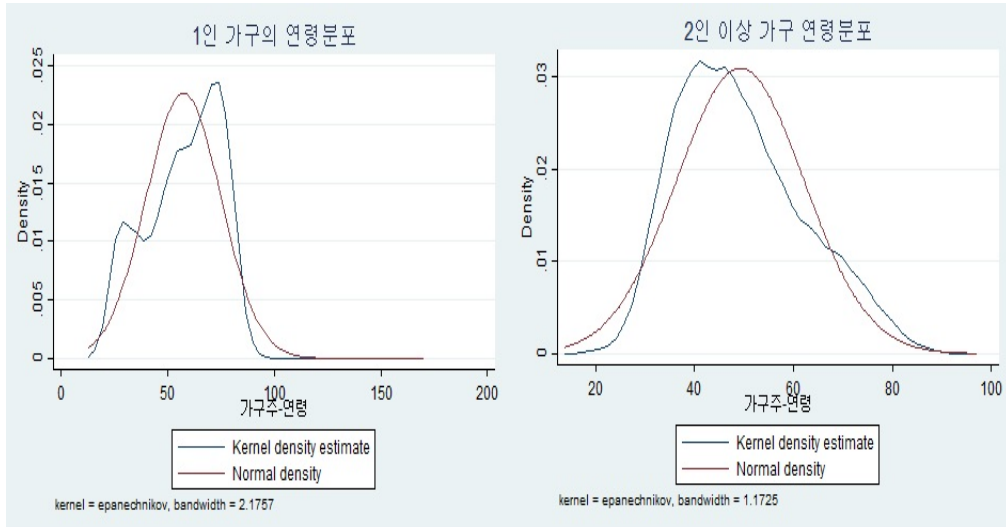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

- 1인 가구는 내부 이질성이 매우 커서, 가구주 성별 및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함
- (연령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분포를 비교해 보면 1인 가구의 평균이 57.4세, 중간값이 60세로,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49.2세, 중간값 47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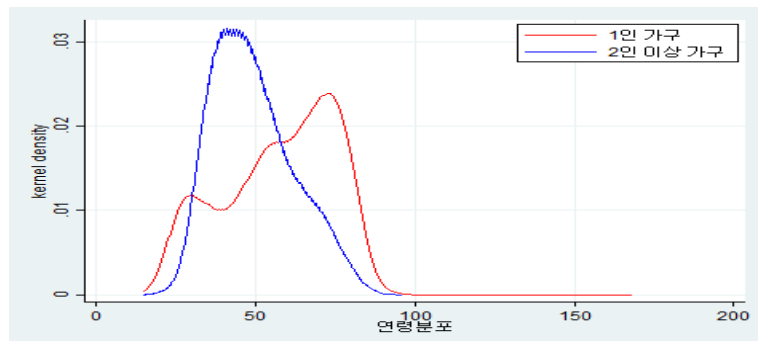
〈그림 3-9〉 가구 유형별 연령 분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1인 가구는 왜도값이  $-0.37$ 로 역왜도(negative skewed) 형태를 보여 고령층 비중이 높은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왜도값은  $0.52$ 로 우측 꼬리가 긴 정왜도(positive skewed) 형태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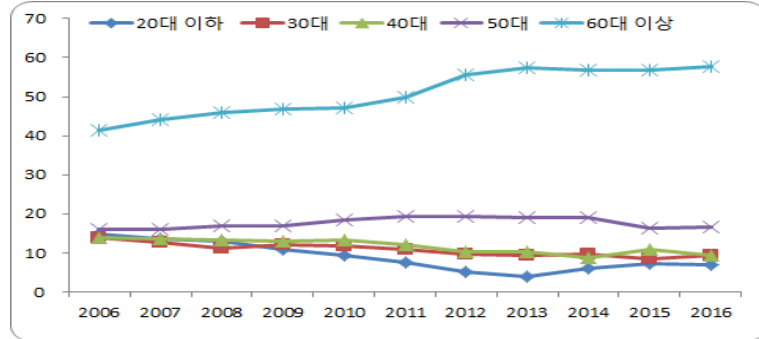
〈그림 3-10〉 1인 가구 vs 2인 이상 가구 연령 분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그림 3-11〉 1인 가구 연령별 분포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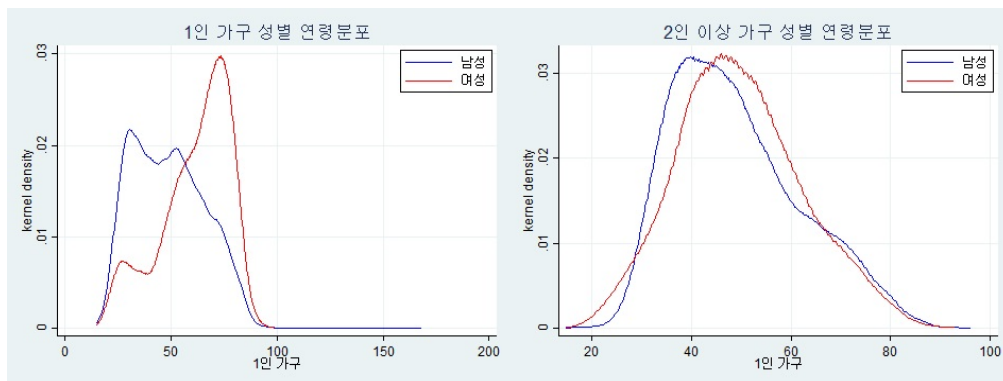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성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성별 연령분포를 비교해 보면 1인 가구의 남성 평균은 48.8세, 중간값은 48세이고, 여성 평균은 61.5세, 중간값은 65세인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남성 평균은 49.1세, 중간값은 47세이고, 여성 평균은 49.8세, 중간값은 49세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여성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왜도는 0.27인 반면 1인 가구의 왜도는 -0.74로 좌측 꼬리가 긴 역왜도(negative skewed)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고령 여성 1인 가구가 많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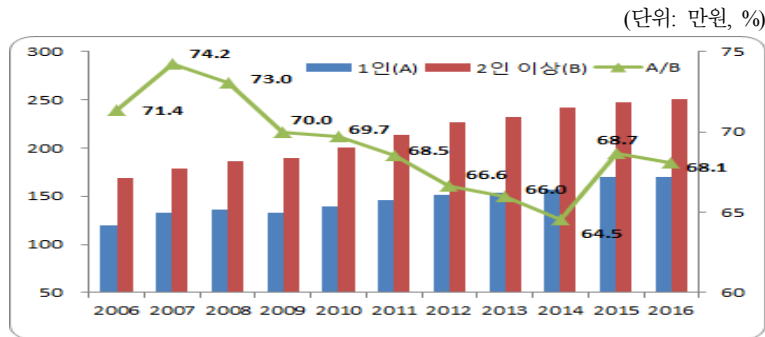
〈그림 3-12〉 1인 가구 vs 2인 이상 가구의 성별 연령 분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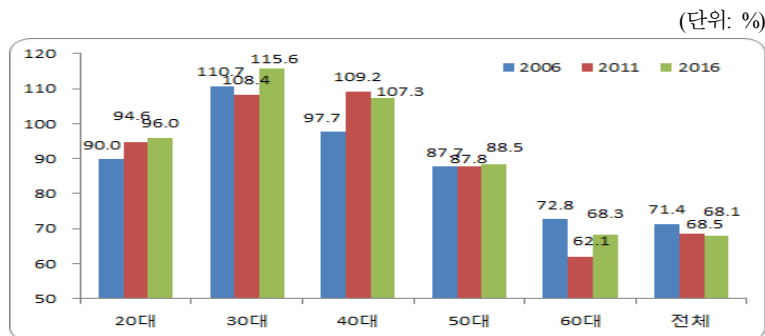
- (소득)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균등화 소득<sup>8)</sup>)보다 낮고, 그 차이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2016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0.3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 소득의 68.1% 수준임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이 급감한 이후 소득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되었음

〈그림 3-13〉 균등화 소득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그림 3-14〉 2인 이상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소득 비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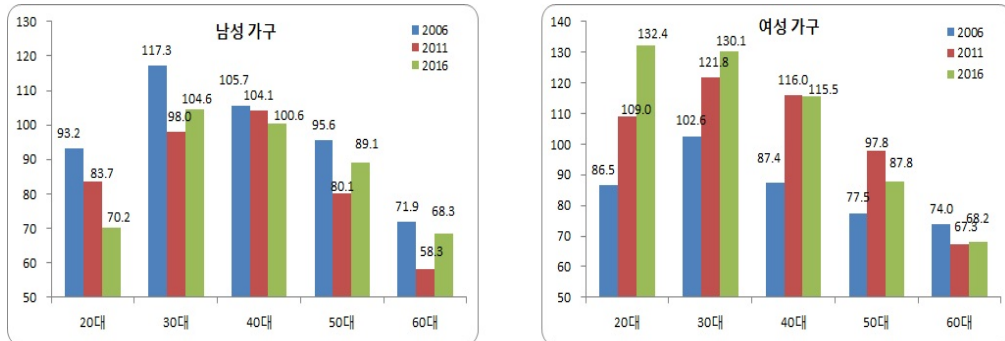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소득은 남성의 경우 30대와 40대가,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보다 더 높은데, 이들은 충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함

8) 균등화 소득은 OECD에서 최근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구의 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누어서 모든 가구 구성원이 동일한 크기의 후생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의 균등화 소득이라고도 함

향후 소비시장 확대할 잠재 수요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5〉 2인 이상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성별 소득 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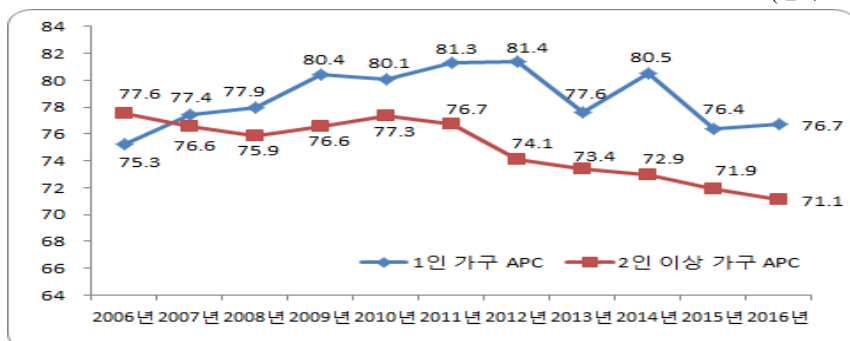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소비지출구조)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하향세를 보이면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1인 가구는 지출이 처분가능소득의 76.7%를 차지하므로 소비지출 규모가 큰 반면 저축여력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

〈그림 3-16〉 가구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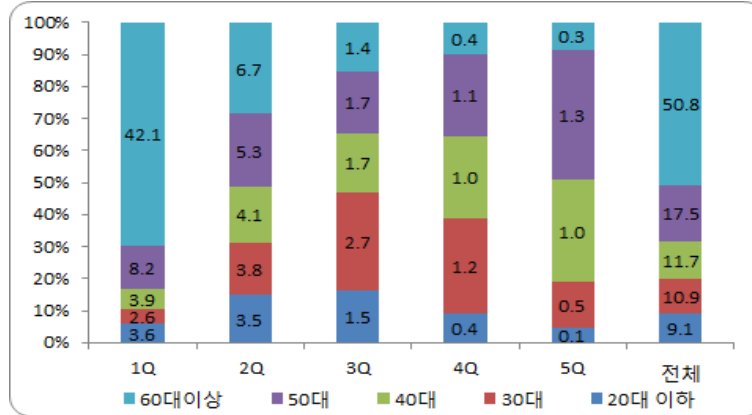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그림 3-17〉 1인 가구 연령\*소득분위별 평균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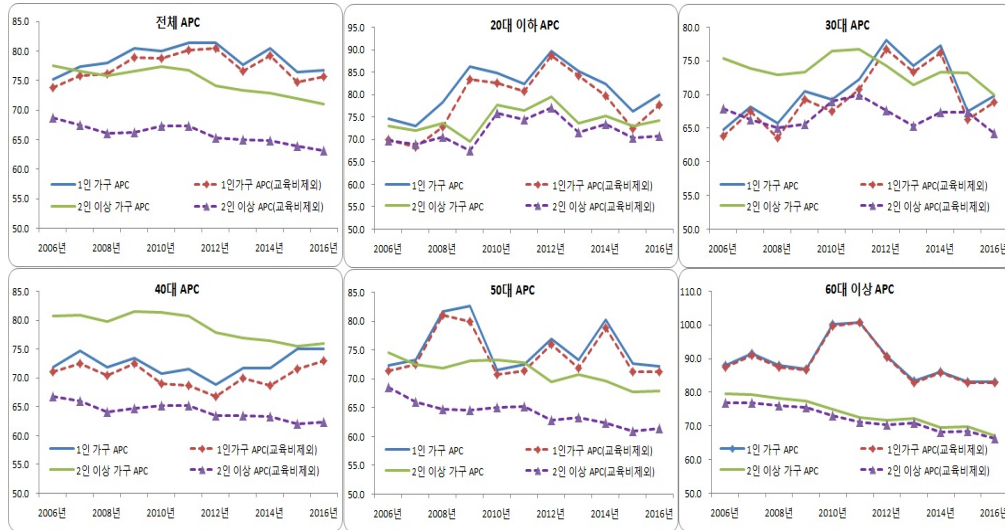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그러나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높아 소비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향후 소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는 전체 소비규모의 증가보다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가장 높은 수준이나, 이들은 낮은 소득수준 대비 필수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소득의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져 삶의 질이 낮음
  - 20대 이하 및 50대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데, 이는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20대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50대 남성들이 자기 지향성이 강한 소비구조를 가지기 때문임
  - 30대 및 40대 2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더 높고 변동성이 작는데, 이는 높은 교육비 지출에 기인함

〈그림 3-18〉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vs 교육비 제외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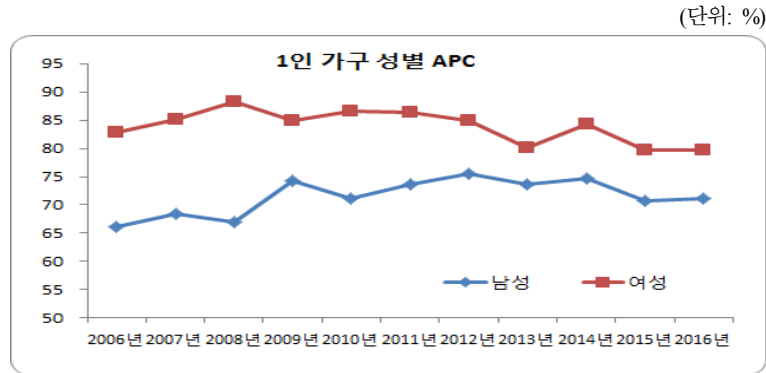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교육비를 제외한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2인 이상 다인가구의 소비성향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기이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다른 기타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소비지출 행태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내수 진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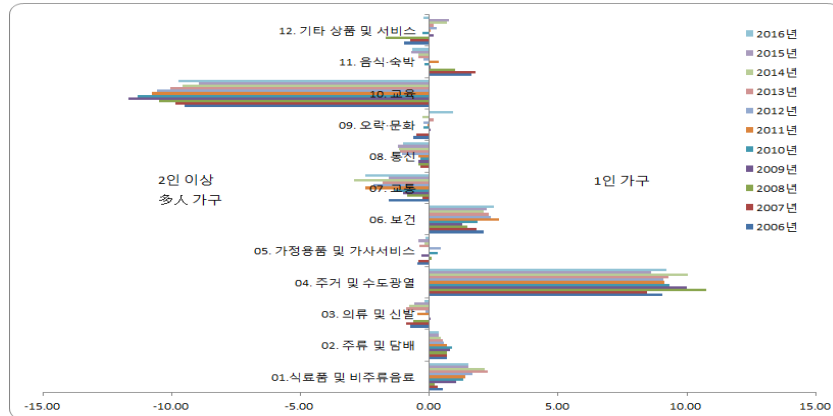
–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보다 평균소비성향이 훨씬 높은데, 이는 자아실현 욕구가 높고 경제력을 갖춘 20대 및 30대 미혼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필수소비 지출만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보이는 고령 1인 여성 가구의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9〉 성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 남성 1인 가구는 여성 1인 가구보다 평균소비성향이 훨씬 낮는데,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경제력이 높은 40대 및 50대 이혼 및 비혼 가구가 많아 여성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은 낮고 필수지출이 높은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필수적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소득수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고령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전반적인 소비지출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 가정용품·가사 서비스는 저조한데, 이는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전·월세 비용이나 주거비에 대한 지출 비용은 큰 반면 자가(自家)가 아닌 임대 공간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는 것에 기인함
- 보건 및 주류·담배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고령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그림 3-20〉 1인 가구 대비 2인 이상 가구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차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평균 품목별 소비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거·수도·광열(19.7%), 식료품·비주류음료 (15.3%), 음식·숙박(13.1%), 교통(10.6%)의 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2> 참조)
- 특정 품목에 편중된 소비지출 구조는 가계수지에 악영향을 주며, 예산제약 하에서 다른 품목들의 소비지출을 제한하게 되므로 경제적 복지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연령별) 전 연령층에서 앵겔지수와 슈바베계수가 높으며, 20대, 30대, 40대 가구의 경우 음식·숙박 및 교통 비중이 높음.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체 보건 및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 (성별) 남성 1인 가구는 음식·숙박(22.1%), 주거·수도·광열(21.5%), 교통(17.8%) 품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소비비중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17.0%), 보건(9.8%), 기타상품·서비스(9.3%) 품목에서 남성보다 높은 소비비중을 차지함
  - (소득 분위별)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비중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반면, 교통 및 오락·문화 비중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임



〈표 3-2〉 2006년 ~ 2016년 1인 가구 평균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단위 : %)

품목별	전체	가구주 연령별					성별		소득 분위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식품·비주류음료	15.3	7.3	8.6	10.8	15.3	22.9	11.8	17.0	21.4	13.4	10.2	9.1	8.3
02.주류·담배	1.8	1.7	2.3	2.4	2.1	1.2	4.2	0.7	1.8	2.0	1.9	1.5	1.1
03.의류·신발	6.0	8.6	7.0	6.6	6.2	4.3	5.1	6.4	4.5	6.3	7.3	7.7	7.3
04.주거·수도·광열	19.7	19.4	16.6	16.4	17.9	23.6	21.5	18.8	24.0	20.0	15.4	12.7	11.8
05.가정용품·가사서비스	3.7	2.7	3.0	3.3	3.7	4.7	2.8	4.2	3.9	3.4	3.6	4.1	4.2
06.보건	8.7	3.7	4.2	5.2	8.1	14.2	6.4	9.8	11.7	7.2	6.1	7.0	6.4
07.교통	10.6	13.4	15.8	14.3	11.0	5.5	17.8	7.2	6.6	10.9	14.2	15.7	17.0
08.통신	5.3	6.9	6.5	6.4	5.4	3.6	6.9	4.5	5.0	5.8	5.7	4.8	3.9
09.오락·문화	5.6	7.5	6.7	6.3	5.3	4.3	7.0	4.9	4.4	5.4	6.1	6.9	9.7
10.교육	1.7	4.0	1.7	3.0	1.6	0.4	2.0	1.5	1.0	1.7	1.8	2.8	3.9
11.음식·숙박	13.1	17.4	19.3	16.5	13.1	7.4	22.1	8.9	9.3	15.3	16.7	15.5	13.9
12.기타상품·서비스	8.6	7.6	8.1	9.0	10.3	8.0	7.1	9.3	6.4	8.4	11.0	12.1	12.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Ⅲ. 1인 가구 소비지출 분석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2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해 연령별 및 성별 이질성이 크고 평균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에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
- 전국 1인 가구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006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Pooled OLS<sup>9)</sup> 추정 실시
- **(모형설정)** 먼저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함
  - $\ln APC_i = \beta_0 + \beta_1 H-Number_i + \gamma_1 Age_i + \gamma_2 Age_i^2 + \delta Sex_i + \eta House-Own_i + \epsilon_i$  (식 A)
  - 종속변수는 “소비지출”이 되어야 하나 소비는 소득의 함수( $\ln C_i = \beta_0 + \beta_1 \ln Y_i$ )이기 때문에 소득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온전히 가구 구성원 수의 증가가 소비지출 수준을 얼마나 변동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통제한 평균소비성향(APC)<sup>10)</sup>을 이용하였음
  - ☞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경기 변동적 측면과 소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는 경제 왜곡 현상(distortion)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임
  - 가구 구성원별(1인 가구) 소비지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H-Number)를 더미변수 형태로 포함하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지출성향을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과 비교하여 검토
    - 연령(Age)의 경우 연령제곱항( $Age^2$ )을 추가하여 연령변화에 따른 한계소비 증감을 포착하고, 성별(Sex) 및 주택 소유(House-Own) 여부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함

9) 시계열 자료는 관측치 간에 서로 확률적 독립(stochastic independent)이 아니고, 동시시간(contemporaneous) 변수 및 시차 변수(lagged variable)들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유한시차모형(finite distributed lag model) OLS 분석이 가장 적합하나, 『가계동향조사』의 raw data의 경우 유일키(unique key)가 존재하지 않아 차선택인 Pooled OLS 추정 기법을 적용

10)  $\ln C_i = \beta_0 + \beta_1 \ln Y_i$ 의 식 양변에  $\ln Y_i$ 로 나누어서  $\frac{\ln C_i}{\ln Y_i} = \frac{\text{소비지출}}{\text{처분가능소득}}$  즉 평균소비성향을 종속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소득 통제 가능

- 또한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2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기이한 소비지출 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비를 제외한 평균소비성향 (APC-E)을 구하여 (식 A)과 비교 검토함

$$\ln APC - E_i = \beta_0 + \beta_1 H - N m b e r_i + \gamma_1 A g e_i + \gamma_2 A g e_i^2 + \delta S e x_i + \eta H o u s e - O w n_i + \epsilon_i \text{ (식 B)}$$

〈표 3-3〉 추정 결과

VARIABLES	(1)		(2)		(3)	
	ln_apc	ln_apc_e	ln_apc	ln_apc_e	ln_apc	ln_apc_e
_lh_number_2	-0.0495*** [0.00608]	-0.426*** [0.0108]	-0.0168*** [0.00626]	-0.398*** [0.0113]	-0.00885 [0.00630]	-0.392*** [0.0114]
_lh_number_3	-0.0760*** [0.00624]	-0.337*** [0.0113]	-0.0393*** [0.00646]	-0.306*** [0.0120]	-0.0303*** [0.00650]	-0.298*** [0.0121]
_lh_number_4	-0.0256*** [0.00609]	-0.254*** [0.0112]	0.0233*** [0.00656]	-0.211*** [0.0124]	0.0346*** [0.00662]	-0.202*** [0.0125]
won1_age	-0.00836*** [0.000962]	0.0109*** [0.00161]	-0.00884*** [0.000959]	0.0104*** [0.00161]	-0.00721*** [0.000962]	0.0118*** [0.00164]
age_sq	0.000107*** [9.30e-06]	-3.49e-05** [1.52e-05]	0.000111*** [9.28e-06]	-3.17e-05** [1.52e-05]	9.93e-05*** [9.26e-06]	-4.11e-05*** [1.53e-05]
_lwon1_sex_2			0.0820*** [0.00429]	0.0711*** [0.00835]	0.0785*** [0.00431]	0.0683*** [0.00837]
_lhouse_own_2					0.0444*** [0.00348]	0.0369*** [0.00735]
Constant	4.553*** [0.0226]	6.446*** [0.0404]	4.512*** [0.0227]	6.411*** [0.0405]	4.439*** [0.0234]	6.350*** [0.0424]
Observations	114,367	114,367	114,367	114,367	114,367	114,367
R-squared	0.012	0.025	0.015	0.026	0.016	0.026

Robust<sup>(1)</sup>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lt;0.01, \*\* p&lt;0.05, \* p&lt;0.1

11) 표준오차는 등분산성(homoskedasticity) 가정에 기초하여 얻어지지만, 오차항의 구조가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Huber-White 분산 공분산 행렬 공식에 따라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강건한(robust) 추정치 도출

- **(추정결과)** 1인 가구는 2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 변화에 따라 특정 연령에 이르면 한계소비성향은 근소하게 체증하고 있음을 확인
  - 추정결과 (1)은 가구 구성원 수와 연령 변수만 고려한 추정치로, 2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약 5%, 3인 가구는 7.6%, 4인 이상 가구는 2.6% 정도 평균소비성향이 더 낮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상승하면 평균소비성향이 0.84% 감소하나, 그 감소 정도는 연령 상승에 따라 줄어들어 연령에 따른 한계평균소비성향은 0.01% 체증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교육비를 제외한 평균소비성향과 비교해 보면, 2인 이상 다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지출은 2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보다 42.6%, 3인 가구는 33.7%, 4인 이상 가구는 25.4% 더 낮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인 이상 다인 가구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여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1인 가구의 경우 소비 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 지나친 교육비 부담으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경직적인 소비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2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성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향후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추정결과 (2)는 가구 구성원 수, 연령 변수 및 성별을 더미 변수화하여 추가한 추정식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이 8.2%(교육비 제외한 평균소비성향은 7.1%) 더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추정결과 (3)은 자택 비소유자는 소유자보다 평균소비성향이 4.4%(교육비 제외한 평균소비성향은 3.7%) 더 높는데, 이는 1인 가구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IV. 결론

-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경우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짧은 기간에 급증하였기 때문에 이질성이 매우 크고, 급속한 고령화 진척으로 인해 고령 가구 특히 여성 고령 가구 비중이 높은 양상임
-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증가는 침체된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층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필수적 소비만으로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소득원천 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고령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새로운 복지지원 정책이 요구됨
  - 또한 소비지출 측면에서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감소는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 도입이 시급함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남성 1인 가구보다 소비지출 성향이 높는데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대 및 경제력 향상과 자아성취 욕구가 높은 비혼 여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신규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청됨
  -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증가 및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비혼 및 만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 1인 가구들은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계 생산이 시장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생산요소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자택 미소유자들의 주거비 부담 비중이 훨씬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실질적인 소비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택정책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됨
  -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적시성을 갖춘 새로운 주택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미취업 상태의 20대 1인 가구, 저소득 독거노인가구 등에 대한 주택정책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